

Style

조선일보

SUMMER 2021



HAMILTON

 HAMILTON



HAMILTONWATCH.COM



INTRA-MATIC
CHRONOGRAPH H MECHANICAL
SWISS MADE

세계 최초 디지털 시계 펄서(Pulsar)를
복각한 모델 PSR은 독특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특징. 버튼을 누르면 숫자에
빨간색 조명이 들어온다. 1970년대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이
아이코닉한 시계에는 해밀턴의 혁신성을
오롯이 담았다. 1백3만원 **해밀턴**.



강력해진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 카키 네이비 스쿠버. 지름 43mm 케이스는 스크래치에 강한 세라믹 베젤로 제작했으며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춰 수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좋다. 1백38만원 **해밀턴**.

POSITIVE VIBES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다니엘 헤니와
함께하는 시계, 해밀턴.
photographed by **kang hyun in**

1968년 탄생한 시그너처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트라-매딕
오토 크로노, 빈티지한 감성과
메시 브레이슬릿이 만나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다. 3백9만원 **해밀턴**.



블랙 PVD 코팅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 블랙 가죽 스트랩의 모던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카키 필드 킹. 내구성이 뛰어나며 어둠 속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선사한다. 90만원 **해밀턴**.



해밀턴의 상징적인 컬렉션 카키 필드 메카니즘은 일리트리 스타일이 돋보인다. 1960년대에 출시한 오리지널 모델의 디테일을 충실하게 되살리며 해밀턴 군용 시계의 유산을 강조한 디자인. 블랙 다이얼에 그린 컬러 나토 스트랩을 적용한 카무플라주 조합이 특징이다. 82만원 **해밀턴**.

문의 **해밀턴** 032-320-7559

헤어 **태민**(에브뉴존)
메이크업 **노미경**(에이바이블)
스타일리스트 **신지혜, 황선영**(intrend)



STYLECHOSUN.COM | 해밀턴의 상징적인 컬렉션 카키 필드 메카니즘은 일리트리 스타일이 돋보인다. 1960년대에 출시한 오리지널 모델의 디테일을 충실하게 되살리며 해밀턴 군용 시계의 유산을 강조한 디자인. 블랙 다이얼에 그린 컬러 나토 스트랩을 적용한 카무플라주 조합이 특징이다. 82만원 **해밀턴**.

behind the story

차분하고 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 성숙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한 카리스마, 그리고 다니엘 헤니와 나는 의미 있는 대화, photographed by kang hyun in



지난 6월 해밀턴과의 캠페인 촬영차 부산에 방문한 다니엘 헤니를 만났다. 약천후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특유의 온화한 에너지로 촬영 현장을 이끄는 그를 보자마자 묻고 싶은 질문은 명확해졌다. 올해 초부터 쉬지 않고 프리하와 LA, 그리고 서울을 왕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현재 고향 미시간에 머물며 온전한 여름휴가를 보내는 중이다. 서면을 통해 그의 평범한 일상과 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일에 대해 물었다.

Q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인부를 먼저 묻게 돼요. 잘 지내고 있나요? 아주 잘 지내요. 마침내 휴식 시간이 생겨서 가족, 친구들과 미시간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촬영을 위해 LA와 유럽, 서울을 다니며 무려 세 번 격리해야 했거든요. 이 작은 휴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곧 프리하로 돌아오. 올해 남은 대부분의 시간은 <휠 오브 타임>의 마지막 촬영하는 데 보낼 듯해요. 참, 오늘 밤 NBA 결승전 첫 번째 경기가 있어서. 제반 러건 로스코, 줄라엣과 함께 경기를 볼 예정이에요.

Q 현재 촬영 중인 <휠 오브 타임>은 순조롭게 향해 중인가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아쉬운 상황을 마주하긴 했지만요. 첫 시즌 촬영에만 2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할애는 꼭 방영되기를 희망해요. 사람들이 좋아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Q 당신은 무엇에서 영감을 얻나요? 영감이란 아무것도 내기 위해서는 뚜렷한 인물이 있어야 할 듯하네요. 어디에서든 무엇에서든 영감을 얻어요. 제 인생 경험과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음악과 색, 책, 시에서요. 새로운 역할을 할 때마다 주어진 숙제를 하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발견하는 과정이 이 일에서 가장 즐거운 점이에요.

Q 영감은 다니엘 헤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나요. 영감은 제게 모든 것을 의미해요. 영감이 없으면 느끼지 않아요. 생계를 위해 진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Q 셀러브리티로서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주어진 배역에 가장 적역의 역할을 해내는 이유예요. 정해진 규칙도, 어떤 장면을 위한 좋은 방법도 없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비관하며 하루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 압박에서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또 해는 배우는 직업 인생에서 보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요.

Q 처음에는 끔찍한 일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좋은 일이었음을 알게 된 인생의 사건이 있다면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많은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고,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 몇 번 바보 같은 실수를 했지만, 그런 도전들이 저를 매 순간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런 도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Q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 가지 순간(moment)은요? 음, 당연한 말이지만 첫째로 제가 태어난 순간이요. 하하. 두 번째는 한국어로 이산한 것이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지만, 분명 제 삶에서 필요한 경험이었죠.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몇 가지 해답을 얻기도 했고요. 제 어머니에게 과거를 되짚어보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첫 집을 정한 순간도 잊을 수 없어요. 늘 상상해오던 일이 실제로 이뤄진 거죠. LA에 있는 집을 1년 동안 개조했다고 결정할 것도 제 삶에서 큰 도전이었죠.

Q 무엇이 당신을 카메라 앞에 서게 만드나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것 없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예술적 표현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삶의 일부예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매번 촬영할 때마다 처음처럼 신경이 곤두서고 두렵기도 하죠. 늘 새로운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멋진 면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주제에 직면하고, 이 모든 창작 과정이 즐거워요.

Q 과거 인터뷰를 보면 '성실'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유독 '덕', '성실', '온건'에 대해 자주 말하기도 했고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이나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적었어요. 세상에 저보다 월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무언가 잘하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이 남들과 다른 위대함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성실의 굳은살만 보고도 남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게는 늘 중요해요. 근면, 정직, 친절은 우리 세상에서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미덕이에요.

Q 이번 해밀턴과의 촬영은 어땠나요? 낯은 날씨에 이번 촬영이 쉽지 않은 일

있을 텐데요. 날씨가 좀 터프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날씨가 협조하지 않을 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거든요. 비디오에 더 멋진 사사를 부여 한 듯해요. 영상 감독님이 원했던 감정의 어조와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Q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해밀턴의 캠페인서도 촬영했어요. 해밀턴과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그동안 해밀턴이라는 브랜드에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첫 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오랫동안 함께했기에 이제 해밀턴은 저에게 가족과도 같아요. 이전부터 해밀턴 시계를 좋아했어요. 해밀턴의 디자인, 정인 정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대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갖고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매우 비싼 물건은 저를 힘들게 하거든요. 해밀턴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시계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Q 캠페인서로서 그동안 해밀턴의 많은 제품을 착용해왔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는 어떤건가요? 몇 년 전 해밀턴과 멋진 협업을 했어요. 다니엘 헤니 모형 시계를 들고 나왔는데, 뚝딱과 케이스에 제 사진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만의 시계를 갖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버지와 삼촌에게 하나씩 드렸더니 모두 좋아하셨어요. 최근 삼촌이 돌아와서 테니스에 있는 삼촌 특색 시계를 미시간에 있는 저희 집으로 챙겨왔어요. 제가 보관하려고요. 지금은 삼촌을 기리기 위해 피아노 위에 시계를 올려두었죠.

Q 40대가 되는 것이 무렵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나요?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40대였던 듯해요. 저는 늘 꽤 조숙한 편이었어요. 많은 것을 여행했고, 수많은 경험을 했기에 이미 40년간 인생을 산 듯해요.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며 모든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40대가 되는 건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두려움은 없어요.

Q 요즘 다니엘 헤니를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을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죠? 제 반려견인 로스코와 줄라엣은 저를 항상 웃게 만듭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 똑똑해요. 아침에 저를 깨우려고 침대에 뛰어오는데,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떤 때는 정말 웃스런데, 이런 반전 매력도 저를 항상 웃게 만들어요. 저는 할 때 가장 열정을 느끼는 듯해요. 제가 일을 할 때는 강박적으로 거기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 모든 것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향인 미시간에 와서 호수에서 배를 탈 때 가장 신나고 에너지를 얻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시간들과 해밀턴에 대해 되돌아볼 때 가장 행복해요. 또 골프랑 클래식 보트에 빠져 있고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연주에도 흥미를 느껴요. 하하.

Q 배우 다니엘 헤니 하면 매니와 휴머니즘이 담긴 유머 감각을 빼놓을 수 없죠. 따뜻하고 유쾌한 정서를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비롯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유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웃음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예요. 웃음보다 중요한 건 없죠. 우리 가족은 항상 풍자를 하고, 진정한 얼굴로 농담을 해요. 유머 없는 삶 상상할 수 없어요.

Q 마지막 질문이에요. 올해 새롭게 세게 계획이 있나요? 피아노를 배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또 한국에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브랜드 미펍(mepup)을 포함한 몇몇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적인 면에서도 더 성과를 내고 싶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애디티 아주이



1-4 카키 에비케이션을 착용하고 농구 플레이 콘셉트로 촬영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5-7 이른 정미일을 맞은 부산, 촬영 하기 위해 날씨는 아니었지만, 특유의 온화한 에-프로 현장을 이끈 다니엘 헤니. 8 바이커 복에 잘 어울리는 클래식한 카키 필드 스.



인트라-매틱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해밀턴 아메리칸 클래식스의 감성을 재현한 타임피스. 기존 워치의 감성을 간직하면서도 40mm 사이즈의 슬림한 스틸 케이스로 현대적이고 심세한 개성을 드러낸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큰 인기를 끈 해밀턴 크로노그래프 스타일을 연상시킨다.

(왼쪽부터) 기본 페이퍼 락투 다이얼에 화이트 컬러 링을 배치한 디자인, 6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창 등에서 해밀턴의 크로노그래프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스틸 소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세련되고 도시적이다. 1백43만원. 라이트 그린과 화이트 컬러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핀다 다이얼로 해밀턴의 클래식하고 정통적인 디자인을 표현했다. 여기에 정교하게 설계한 스테인리스 메시 브레이슬릿을 더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케이스 지름은 40mm.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3백만원. 핸드-외판형 유무로 시계 사용자의 고급스러움을 나타내는 타임피스다. 반스 오토의 기존 해밀턴 크로노그래프 디자인과 같이 블랙 핀다 다이얼을 적용해 빈티지한 느낌을 주며 인디스에 슈퍼-루미노바와 반스 스틸 사베이어 크리스탈을 더해 독보적인 해밀턴 크로노그래프 스타일을 완성한다. 2백80만원.

카키 네이비 스쿠버

클래식 다이버 워치의 기능과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세라믹 소재 베젤 링으로 스크래치와 부식에 강하며 휴양지나 해양 활동 시 바닷물이나 모래 등으로부터 시계를 보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단방향 회전 베젤과 정확한 엔지니어링, 뛰어난 기동성 등 실용성까지 갖췄다. 수심 100~300m 방수가 가능하며 오토매틱부터 퀴츠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왼쪽부터) 올 화이트 컬러로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퀴츠 워치. 물과 모래 등에 강한 세라믹 베젤로 이루어져 해양 활동에 적합하며 그 위에 정교하게 인그레이빙한 숫자는 심플한 디자인 요소가 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이트 라버 스트랩은 스포티한 느낌을 더한다. 87만원. 지름 43mm 케이스와 12시 방향에 위치한 슈퍼-루미노바형 도트 등으로 수중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한다. 다이얼과 베젤 링, 라버 스트랩까지 블랙 컬러로 통일해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수심 300m까지 방수 가능하다. 1백38만원.

watch for expedition

혁신을 바탕으로 한 아메리칸 스피릿에 스위스 워치 기술의 정확성을 더해 독창적인 워치 컬렉션을 완성해나가는 해밀턴. 대표적인 항공 시계를 넘어 철도, 해저, 시티 라이프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카키 필드 메카니컬

해밀턴에서 수십 년에 걸쳐 제작해온 밀리터리 스타일 워치로 군용 시계 고유의 스타일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외판형 로터를 장착하지 않아 케이스는 슬림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 부드러운 가죽 스트랩으로 편안한 착용감 등 실용적인 면모까지 갖췄다. 80시간 연속 파워 리저브가 가능해 스타일뿐 아니라 기능까지 챙기는 모험가를 위한 워치다.

(왼쪽부터) 카키 필드 메카니컬 기본 디자인으로 슬림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을 매치해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은은하게 태양한 듯한 가죽 스트랩은 밝고 경쾌한 감성을 더해준다. 비스한 컬러 핏츠와 이광 미커로 디자인의 통일감을 완성한다. 71만원. 군용 장식과 메달의 해밀 소재인 브론즈로 제작한 케이스 디자인을 갖춘 워치로 해밀턴 최초의 브론즈 워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유의 독특한 컬러를 내는 브론즈 소재를 사용해 군용 시계에 어울리는 거친 느낌을 줄고 동시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빈티지한 감성까지 담았다. 여기에 짙은 브라운 컬러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미학적, 실용적 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1백10만원.

카키 에비에이션 X-원드 오토 크로노

파일럿을 위해 설계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워치로 마스터 공예비행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안되었다. 정확한 항해에 중요한 요인 측정 기능과 바람 방향에 따른 편류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을 위해 스크루 다운 크라운을 시계 우측에 배치했으며 크로노그래프 작동을 위한 푸셔를 왼쪽으로 이동했다. 해밀턴 타임피스 중 가장 정교하고 실용적으로 디자인한 항공 시계 컬렉션이다.

(위부터) 샌드 스톤 베이지 PVD 코팅 차양 지름 45mm 브라운 컬러 케이스가 투블루 퍼피핀 다이얼을 매치해 전통 항공 워치의 전문적인 느낌과 빈티지한 감성을 더한다. 여기에 최첨단 페브릭 스트랩을 더해 탐험용 시계 스타일을 완성한다. 2백00만원. 딥 블루 다이얼에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매치해 사용하고 세련된 감성을 더한다. 다이얼을 휘 채운 날바침과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이 전문적인 느낌을 배가한다. 내부 회전 베젤과 실리콘 헤어 스프링을 장착해 항공 워치로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2백70만원. 문의 032-320-7539 아더 스타영민





American spirit, Swiss made

해밀턴은 미국의 합리적 실용주의와 완벽에 가까운 스위스의 기술력, 그리고 선구자적 개척 정신으로 무장했다. 이들이 쌓아온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해밀턴의 예술적인 시계 공학 스토리.

해밀턴을 정의하는 또 다른 이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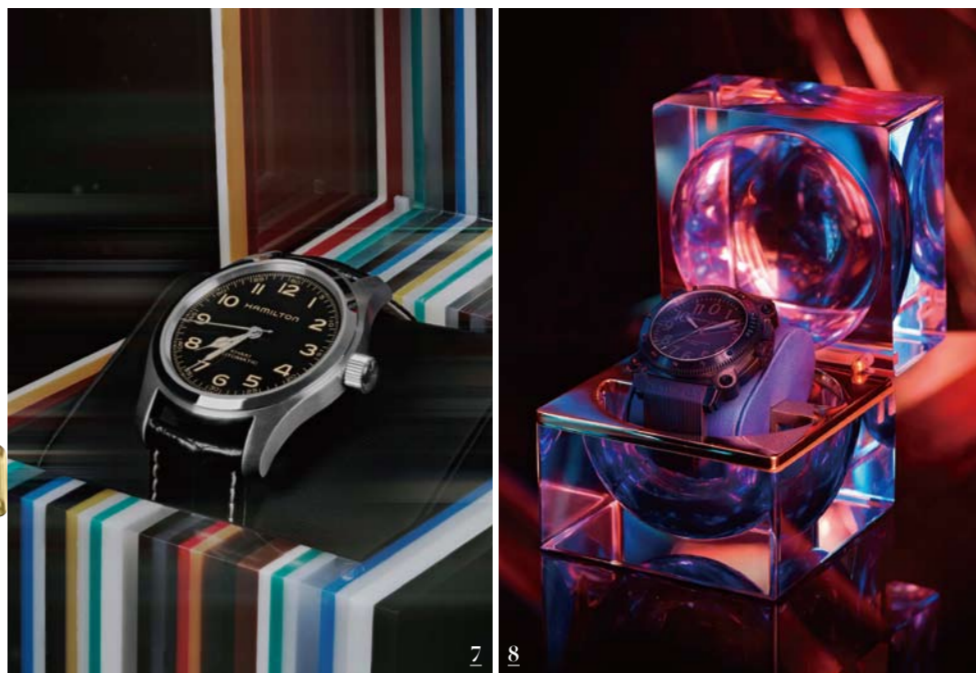
해밀턴의 시계는 미래 지향적이다. 시계 역사에 길이 남는 제품을 여럿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벤츄라' 컬렉션이다. 세계 최초 전자시계라는 타이틀을 단 이 타임피스는 첫선을 보인 1957년 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우주 시대를 상징하는 요소다. 독창적인 삼각 형태 케이스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이루며 정밀한 기술력과 미학적 요소를 겸비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진화를 거듭해 새롭게 선보인 '벤츄라 엘비스 80 스켈레톤' 워치는 벤츄라 클래식 스타일을 재해석해 벤츄라 컬렉션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을 품고 재탄생했다. 오픈워크 다이얼 위 세로선의 지그재그 패턴은 컬렉션의 상징 중 하나인 전기 필사 형태를 재현해 정체성을 이어가며, 전기 대신 오토매틱 베이스 칼리버 H-10을 적용했다. 무브먼트를 가감없이 드러낸 스켈레톤 다이얼을 통해 완벽에 이르는 복잡 정교한 메커니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데, 코트 드 제네바 장식을 새긴 H-10 무브먼트는 해밀턴만의 독보적인 수준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으로,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스켈레톤 다이얼에 블랙 PVD 코팅 처리한 버전인 레드 전기 필사 모터브를 적용한 버전과 로즈 골드 PVD 코팅에 로즈 골드 전기 필사 모터브를 조합한 두 가지 모델이 컬렉션을 이끈다. 이 두 모델에는 블랙 러버 스트랩을 적용해 한 걸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역사와 혁신의 연결체로서 해밀턴을 대변하는 'PSR' 컬렉션도 있다. 1970년 첫선을 보였으며 당시 손목에 착용하는 컴퓨터란 별칭을 얻은 이 제품은 현대에 와서 반사형 LCD와 방출형 OLED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 모델로 선보인다. 메탈 소재로 제작한 쿠션 형태의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특징인 PSR은 어두운 화면에 디지털 숫자로 시간을 발현한다. 직경 40.8×34.7mm의 쿠션형 다이얼에 큼직한 디지털 숫자로 시간을 알리는 이 모델은 스포티하면서 실용적인 기능을 아낌없이 담았다. 약 100m 방수 기능을 갖추고, 하이브리드 디스플레이 덕분에 낮은 에너지 소비를 보장한다. 케이스에 장착한 버튼을 누르면 아이코닉한 디지털 도트 타임의 빨간색 숫자가 불이 들어와 시간을 직관적으로 표시한다. 역동적 디자인으로 목격한 오라를 풍기는 모델은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과 스테인리스 스틸에 옐로 골드 PVD를 코팅 적용한 두 가지 배리어이션으로 준비했다.

하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시계 역사에서 전혀 없는 순간을 기록한 해밀턴의 선구적인 '혁신'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선구자적 정신을 잇는 개척자들에게 대한 지지와 협업을 진행해온 해밀턴은 전기가 곧 미래라는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항공 여행 분야를 개척 중인 스마트플라이어(SmartFlyer LTD)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하늘을 향한 열정이 이

들의 교집합. 전문 파일럿 롤프 스투버(Rolf Stuber)가 스위스 그레첸에 설립한 스마트플라이어는 21명의 강력한 팀으로 구성된 미래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전기로만 추력을 생성해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며, 비행 중 레인지 익스텐더는 발전기를 돌리는 작은 연소기관을 통해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생성한다. 기존 비행기보다 소음이 적어 승객들은 한결 더 쾌적한 비행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높은 효율성과 최소의 연료 소비로 운영비 대폭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획기적인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를 보유한 이들에게 항공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스마트플라이어는 4인승 여객기로 2023년 첫 비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8년 개인용 판매를 목표로 한다. "해밀턴의 선구자적 정신이 우리가 위치메이킹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영감을 주는 것처럼, 하늘은 획기적인 SFX1이 비상하는 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확성에 중점을 둔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최첨단 신기술을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항공 우주 산업으로까지 발전시킬 것입니다." 해밀턴 CEO 비비안 슈타우퍼(Vivian Stauffer)는 스마트플라이어와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다고 이야기했다.



1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 다이얼 워치 PSR 1백32만, 2 1천3백70개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옐로 골드 PVD 코팅 버전의 PSR 1백32만, 3 레드 전기 필사 모터브로 포인트를 준 벤츄라 엘비스 80 스켈레톤 2백49만, 4 무브먼트 H-10로 구동하는 벤츄라 엘비스 80 스켈레톤 2백49만, 5 해밀턴의 파트너십을 이룬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 스마트플라이어, 6 벤츄라 모델 마-10로 알려진 엘비스 프레슬리, 7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터스텔라(Interstellar)>에서 시공간을 잇는 매개체로 활용한 카키 필드, 8 <테넷(Tenet)>을 위해 특별 제작한 카키 네이비 빌로우제로 2백91만원, 9 영화 <진주만(Pearl Harbor)>에서 빛을 발한 카키 필드 핸드 워치, 10 진화를 거듭해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선보이는 벤츄라 컬렉션, 11, 12 세 10회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드(Behind the Camera Award, BTCA)에 사상자로 참여한 라미 말레콜리안 고승원.

자유롭고 열정 넘치는 아메리칸 스피릿에 기반을 둔 해밀턴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1932년 <상하이 익스프레스(Shanghai Express)>를 통해 스크린에 처음 등장한 이래, 5백여 편이 넘는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유명 영화배우와 존재감 넘치는 캐릭터들의 손목을 장식하며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영화 시계 제작자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영화 속 모험가와 매혹적인 빌런, 리더와 슈퍼 히어로의 선택을 받아온 해밀턴이 등장한 영화의 자취를 따라 작품 속 해밀턴 시계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정밀함으로 구현한 완벽한 기술력

군인에게 시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작전을 위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프로그맨(The Frogmen)>(1951)에서 미 해군 수중 폭파반을 이끄는 프랭클린 중위를 연기한 리처드 워드마크와 그의 팀원들은 실제 과거 다이버들이 그랬듯 해밀턴 프로그램 워치를 착용한다. 이를 상징하는 군용 물통 모양의 크라운은 현대에 와서 재해석한 카키 네이비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같은 시대 배경의 <진주만(Pearl Harbor)>(2001)에서 벤 애플렉과 조시 하트넷이 연기한 전투 조종사 래프 맥컬리와 대니 워커는 해밀턴 카키 필드 핸드 와인딩을 착용하고 등장한다. 이 모델은 실제 미군에게 공급했던 전투용 타임피스를 모티브로 한 레트로 모델이다. 미 해군 특공대의 다이버 위치에서 영감을 얻은 이 제품은 어둠 속에서도 명료한 가독성을 발한다.

역대급 모험 속에서

수십 년간 영화에 등장했던 모든 아이코닉한 해밀턴 디자인 중 1961년 로만스 영화 <블루 하와이(Blue Hawaii)> 속 엘비스 프레슬리가 연기한 체드 케이츠의 손목을 빛내준 '벤츄라'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킨 모델은 없을 것이다. 시대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벤츄라 스타일은 여러 SF 블록버스터에서도 모습을 드러낸다. 영화 <맨 인 블랙(Men in Black)>에서 벤츄라의 크리스마 납치는 디자인은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외계인 헌터의 스타일을 완성했다. 1997년 오리지널 영화를 비롯해 이어 선보인 4편의 속편에서도 등장했으며, 2019년 개봉



한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Men in Black: International)>에서는 에이전트 M(테사 톰슨)의 손목을 빛내기도 했다.

천재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에서의 활약

클래식 디자인을 이루는 카키 필드는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2014)를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카키 파일럿 데이 데이트 오토와는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영화를 위해 해밀턴이 특별 제작한 빈티지 스타일 시계로 시공간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 이 타임피스는 우주 미션을 떠나기 전 쿠퍼(매튜 맥커너히)가 딸 머피와 동일한 모델을 나눠 갖는다. 5차원의 공간 테스트에 갇히게 된 쿠퍼는 머피 시계의 초침을 조작해 딸에게 모스 코드 부호를 보내 인류를 구하게 된다. 그때 등장하는 게 카키 필드다. 놀란 감독의 최신파이자 시공간을 넘나드는 내용의 <테넷(Tenet)>(2020)에 등장한 해밀턴의 시계, '빌로우제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해밀턴 디자인 팀과 <테넷> 프로덕션 디자인 팀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탄생한 이 특별한 시계는 해밀턴의 카키 네이비 빌로우제로 다이얼을 기반으로 영화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더해 영화 소품용 시계로 제작되었다. 작품 속 명장면에서 활약한 제품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특별 출시한다. 가벼운 티타늄 케이스로 제작한 스페셜 에디션은 영화에 사용된 주요 컬러인 블루와 레드 컬러로 팀 부분을 강조한 초침을 탑재했으며, 모델당 8백 88피스 한정 제작한다. 신비로운 투명 빛 스페셜 패키지에 선보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해밀턴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드

1932년부터 5백여 편이 넘는 영화에 등장하며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매개체이자, 영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한 해밀턴은 매년 LA 익스체인지에서 비하인드 더 카메라 어워드(Behind the Camera Award, BTCA)를 주최한다. 영화 제작자를 집중 조명하는 시상식으로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유능한 영화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사다. 화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카메라 뒤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의상 디자이너부터 편집자, 기타 영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2006년 처음 개최했으며 2019년 제10회를 맞았다. 역대 시상식에 참여한 시상자로는 나탈리 포트먼, 존 레전드, 이언 맥그리거 등이 있으며, 특히 수상 경력을 빛나는 많은 배우들이 행사에 참여해 영화 제작에 없어서는 안 될 수 상자들에게 헌사를 전한다. 어워드 수상자들은 그해에 개봉된 영화 중 선정하며 간, 베니스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와 미국영화협회(the American Film Institute) 영화제에서 가장 최근 발표되었거나 출품 자격을 얻은 작품 중 선정한다. 해밀턴의 전 CEO 실방 둘라(Sylvain Dolla)는 "우리를 울고, 웃고, 꿈꾸게 하는 위대한 영화들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는 우리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전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 대한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문의 032-320-7559 **에디터 이주이**



HAMILTON



HAMILTONWATCH.COM



JAZZMASTER OPEN HEART
AUTOMATIC
SWISS MADE

MONO STORE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7F 02-3467-8710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559 | 갤러리아백화점 광고점 대전점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충청점 하남점 | AK플라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 현대백화점 대구점 디큐브시티점 목동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천호점 충청점 킨텍스점
판교점 더현대서울점 |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관악점 광복점 구리점 노원점 대구점 대전점 부산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울산점 인천터미널점 전주점 청량리점 평촌점 안산점